



국취 알림판



국민취업지원제도 서포터즈 모집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유용한 소식을 SNS에 전파할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인원** 20명 내외
- 모집기간** '24.6월 4주 ~ 7월 3주(예정)
- 활동기간** '24.8월 ~ 10월(총 3개월)
- 활동내용** 영상 1분 내외 숏폼 등 제작
- 활동혜택** 월별 활동비 지급, 활동 종료 후 우수 서포터즈 선발 및 인센티브 지급
- 기 타**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취 인스타그램(@moel.job.erum) 공지(6월 4주 예정) 참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스타그램 이벤트



국취 인스타그램(@moel.job.erum)에서는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7월에는 '밸런스 게임'이 진행될 예정이니 국취 인스타그램을 주목해 주세요

* 8월에는 새로운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취, 나도 참여할 수 있을까? 참여요건 알아보기

I 유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최대 37세)

II 유형 (재산 무관)

청년* 15~34세	소득 무관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 15~69세	소득 무관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I 유형 참여자에게는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 가족수당으로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0만 원(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참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

가구	60%	100%	120%
1인	1,337,067	2,228,445	2,674,134
2인	2,209,565	3,682,609	4,419,131
3인	2,828,794	4,714,657	5,657,588
4인	3,437,948	5,729,913	6,875,896
5인	4,017,441	6,695,735	8,034,882

*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I 유형은 중위소득 60%(청년 120%) 이하 적용

취업으로 가는 길 국·취·로



일생일대 취업이름



일과 생계 지원을 한번에! 대국민의 취업이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경력보유여성, 장기구직자 등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현장마이크

「일과 생계 지원을 한번(일)에! 대국민의 취업이름」 참여자 수기 공모전



“취업에 성공하고 제2의 인생을 살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6월5일(수) 국민취업지원제도 「일생일대 취업이름」 참여자 수기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어요. 공모전에는 총 123편의 사례가 접수되었고, 11편의 수상작(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참가상 5명)을 선정해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수상자 한마디

“나이 50에 적성에 맞는 직장을 구해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지금, 삶이 너무도 소중하고 감사해요. 저처럼 막연함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국취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박○희)

“국취를 통해서 내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낼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민)

“인생에서 변수는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도움들이 참 많다는 걸, 그 도움을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나)

시상식 후 현장소통 자리에서 이민재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하신 분들이 주거, 금융, 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받으면서 취업에 꼭 성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릴 적 꿈을 이룬 일생일대의 취업성공기

“포기는 안 해! 내겐 꿈이 있잖아!”

- 박○희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폐업하면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다. 당뇨가 심해지고, 척추협착증까지 진단받았다.

아픈 몸 때문에 정상적인 직장생활은 어렵겠다는 생각은 우울증으로 발전했고, 주변과 모든 연락을 끊고 2년 넘게 자발적 은둔형 외톨이로 칩거 생활을 하게 되었다.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된 다음 시청에서 상담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받았다. 취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직업가치관검사와 직업선호도 검사를 통해 적성에 맞을만한 직업을 찾아보게 되었다.

취업희망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는데, zoom 수업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연을 가진 구직자들과 만나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을 되찾게 되면서 다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어서 빨리 취업에 성공해서 탈수급자가 되고 싶어졌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간호학원 숙성반 등록 후에 1년간의 대장정을 거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획득하여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이다.

‘마지막 승부’는 옛날 드라마 주제곡으로 요즘 무한재생을 해가며 듣고 흥얼거리는 곡인데 지금의 내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이 느껴져서 더 좋다. 오늘도 난 이렇게 외치며 출근길에 나선다!

‘포기는 안 해! 내겐 꿈이 있잖아!’

24살 봄, 꽃을 피우다

- 김○민



영화감독이 꿈이었던 학생은 꿈의 방향성에 대한 의문만 남겨둔 채 무기력하게 지내던 중 부모님이 주민센터에서 가져온 팸플릿을 보고 고용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다.

상담사님은 다양한 진로방향성을 제시해 주었고 ‘SNS 콘텐츠 제작’을 목표로 활동원들과 콘텐츠를 기획·제작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준비해 정부출연연구원 ‘홍보’ 직렬의 인턴으로 취업했다.

이후 두 번의 이직 후 과학기술계 공기업에 입사해 홍보업무를 하고 있다. 이 수기가 꿈을 찾아가기 위해 성장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시골쥐의 일생일대 도시 상경기

- 김○나



대학 4년을 빼고는 고향을 떠난 적이 없는 내가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던 중 SNS에서 ‘국취’ 설명글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다.

국취 구직촉진수당 덕에 다양한 기업의 면접을 경험했고, 맞춤형 취업상담은 직무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직무교육을 들으며 기회의 폭도 확장할 수 있었다.

국취를 적극 활용하여 원하는 기획자의 직무에 취업할 수 있게 되었고 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나와 같이 취업을 고민하는 지방의 청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 지면관계상 수상작들은 요약본으로 게재하였습니다.